

함박웃음 ‘냉동피자’... 조각난 ‘피자전문점’... 희비교차

내식 선호로 냉동피자 수요 증가
전문점, 1인 피자 출시 등 변화 모색
식품업계, 고품질 냉동피자 ‘속속’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의 영향으로 음식문화가 바뀌면서 피자시장에서 외식 프랜차이즈 피자 전문점과 식품업계 냉동 피자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제품개발 및 내식 선호 문화가 가정간편식(HMR) 제품인 냉동 피자 수요가 증가하는 반면, 1인 가구 증가 및 경쟁 심화 등을 이유로 피자 전문점의 외형은 하락세를 타고 있다.

프랜차이즈 피자업계는 2017년 2조 원대 정점을 찍은 후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국내 프랜차이즈 피자 시장 규모는 2017년 2조 원 시대를 끝으로 2018년 1조8000억원, 2019년 1조5000억원을 기록하며 축소되고 있다. 도미노피자의 매출은 2017년 2197억원, 2018년 2129억원, 2019년 2040억원으로 감소했으며, 미스터피자의 매출도 2017년 815억원 2018년 656억원, 2019년 618억원으로 줄었다. 지난해 9월 미스터피자는 영업부진을 견디지 못하고 치킨 업체 페리카나에게 인수당했다.

특히 업계는 지난해 코로나19로 외식을 꺼리는 기류가 만연한 데다 매장 영



피자헛, 도미노피자, 미스터피자 등 외식 프랜차이즈 피자 전문점이 영업 부진을 겪자 공격적인 할인 프로모션에 나섰다. /각사



CJ제일제당 고메 피자 광고

업이 중단되면서 판매가 여의치 않은 상황도 업계 힘을 빼는 요인이다. 업계는 올해 배달 시장이 팽창했으나 피자 주문이 발맞춰 늘어나지는 않았다고 입을 모은다. 경쟁이 될 수 있는 배달 음식 품목이 전보다 증가하면서 피자에 대한 집중도가 떨어진 것을 원인으로 볼 수 있다. 특히 1인 가구가 증가도 큰 타격을 줬다. 프랜차이즈 피자의 경우 양질의 제품을 앞세워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다. 1인 가구가 먹기에는 다소 양과 가격면에서 부담스러울 수 있다. 이에 피자헛은 1인용 피자 제공 매장을 5개점으로 확대했으며, 도미노피자와 미스터피자도 1인용 피자를 출시하고 나섰다.

프랜차이즈들은 반값 세일을 이어가며 생존 경쟁을 벌이고 있다. 한국피자헛은 2019년 11월부터 꾸준히 50% 할인 행사를 지속하고 있다. 업계 1위 도미노피자도 최근 최대 40%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했다.

여기에 냉동 피자와 내전도 새로운 문제다. 가정간편식 시장이 커지면서 냉대받던 냉동 피자가 새로운 라이벌로 등장했다.

2016년 국내시장 등장한 냉동피자는 2016년 198억원에서 2017년 880억원, 2018년 952억원으로 3년간 지속 성장하다, 지난 2019년 700억원대로 다시 하락하면서 몇 되지 않는 역성장한 간편식품품에 이름을 올린 바 있다.

최근 코로나19로 집에서 먹는 수요가

늘어나면서 지난해 다시 800억원대를 회복하고 있다. 이에 최근 오뚜기, 풀무원, CJ제일제당 등 식품 대기업들이 진출하면서 냉동 피자 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다.

13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냉동 피자 시장(닐슨 기준)은 800억원대로 추정된다. 지난해 1~10월까지 냉동 피자 매출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30%성장한 760억원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로 인해 이례적으로 역성장에 성공한 것이다.

이에 식품업계는 냉동 피자의 맛을 보완하며 제2의 냉동 피자 전쟁에 돌입했다. 오뚜기와 CJ제일제당, 풀무원은 프랜차이즈 피자 못지않은 품질의 피자를 선보이며 시장 점유율을 높여나갈 것

다는 계획이다.

업계 1위인 오뚜기는 지난해 자사 ‘오뚜기 피자’의 도우를 개선하며 품질력을 끌어올렸다. 20시간 이상 저온에서 도우를 숙성해 최상의 불륨감과 유연성을 갖춰 쫄깃하고 맛있는 피자의 식감을 살린 것이 특징이다.

풀무원식품은 피자 테두리(엣지) 부분 빵을 먹지 않고 남기는 점을 착안, 노엣지피자를 선보였다.

CJ제일제당은 2018년 인수한 미국 냉동 피자 2위 업체인 슈완스와의 기술 협력 상품을 처음으로 국내 시장에 내놨다. 제품 개발 단계부터 슈완스와 협업해 도우와 소스, 토핑을 전면적으로 업그레이드했다.

/최효정 기자 princess@metroseoul.co.kr

호텔 셰프가 만든 설음식으로 명절 준비 끝

떡국 등 13가지 메뉴 구성 세트
유기농 쌀떡, 비법 양념갈비 등

최근 호텔들이 명절 선물세트뿐 아니라 차례상 등에 필요한 명절용 음식 판매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메이필드호텔 서울은 13일 한정식당 봉래헌에서 설맞이 음식 ‘세찬’을 선보인다고 밝혔다. 세찬 세트에는 봉래헌의 셰프가 만든 불고기, 해물잡채, 새우튀김, 참조기찜, 소고기산적, 새우산적, 생대구살전, 애호박전, 녹두전, 나물 3종, 떡국 등 13가지 메뉴가 들어간다.

‘세찬’은 본래 설날에 차례를 지내거나 귀한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 준비하는 음식이라는 뜻으로, 세찬 세트에 담긴 모든 음식은 봉래헌에서 직접 담긴 전통 간장을 이용하고, 충남 예산의 직영농장에서 수확한 채소 및 과일을 양



메이필드호텔 서울의 봉래헌이 설 선물세트 중 하나로 10가지 이상 반찬으로 구성된 ‘세찬’을 선보인다. /메이필드호텔

념장 재료로 썼다.

여기에는 ‘서울 3대 떡집’에 해당하는 경기 떡집의 유기농 쌀떡이 주재료인 떡국도 포함돼 있다. 국물에는 양지머리를 우려낸 육수와 천일염, 다시마 등을 넣었다.

세찬은 1세트당 8~10명이 식사할 수 있고 가격은 45만원이다.

메이필드 호텔 서울에서는 ‘낙원 소

갈비 설 선물세트’도 출시했다. ‘한우 양념갈비’, ‘미국산 양념갈비’, ‘낙원 갈비 모듬세트’ 총 세 가지로 이뤄진 해당 선물세트는 역시 특급 셰프가 가장 좋은 갈비 부위만을 엄선, 비법소스에 재워 까다로운 숙성을 거쳤다.

메이필드 호텔의 세찬과 소갈비 선물 세트는 모두 호텔 각 레스토랑서 수령 가능하며 원한다면 택배를 통해 배송받을 수 있다.

또한, 글래드호텔앤리조트에서는 티본 300g 3팩 또는 포터하우스 330g 3팩으로 구성된 프리미엄 비프 스테이크 세트 2종과 블랙앵거스 LA갈비 500g 3팩의 LA갈비 세트, 청정 삼겹 제육구이 500g과 LA갈비 500g, 닭다리살 구이 450g를 판매한다. 지난 2019년부터 사랑받은 글래드 셰프’s 에디션의 비조리 음식 제품들이다. /원은미 기자 silverbeauty@

“발달장애 치료, 만 3세 전 시작해야 효과”

김성구 한림대동탄성심병원 교수

발달장애 치료를 만 1~2세에 조기 진단하고 치료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그동안은 만 3~4세 정도까지 아이가 호전되기를 기다리다 발달장애 치료를 시작하는 경우가 흔했다.

13일 한림대학교동탄성심병원 소아청소년과(소아신경학) 김성구 교수는 보건복지부 지원으로 진행한 ‘장애아동의료비 지원 사업연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김 교수는 2013년 10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한림대학교동탄성심병원·고려대학교병원·한양대학교병원 등 3개 대학병원에서 발달장애로 진단받은 627명을 분석했으며, 나이는 대부분 6



한림대학교동탄성심병원 소아청소년과(소아신경학) 김성구 교수가 진료를 하고 있다.

세 미만이었다.

분석 결과, 전체 발달장애아동 627명 중 62.5%인 392명이 만 0~2세였으며, 국내에서는 장애판정이 불가능한 만 0~1세 아동이 전체 32%인 202명을 차지했다. 장애유형별로는 전반발발달장애는 40% 이상이, 운동발달장애는 98%가 만 0~1세였다. /이세경 기자 seilee@

“‘콜드마스크’, 코로나에 효과”... 학술지 등재

한미약품 비강스프레이 주성분 함유

코에 뿌리는 호흡기바이러스 차단제인 한미약품 ‘한미 콜드마스크 비강스프레이’의 주성분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을 효과적으로 차단한다는 연구 결과가 국제 학술지에 등재됐다.

네이처가 출간하는 SCI급 국제학술지인 사이언티픽 리포트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지원을 받아 한국화학연구

원이 진행한 ‘람다카라기난 성분의 항바이러스 활성을 평가한 시험관 내 세포 실험’ 결과 논문을 12일 게재했다. 해조류에서 추출한 천연 유래 성분인 람다카라기난은 한미약품이 최근 출시한 한미콜드마스크 비강스프레이의 주성분이다. EC50 수치는 람다카라기난 0.9±1.1g/ml, 램데시비르 14.1±0.7g/ml(23.5±1.2 M)으로 나와, 람다카라기난이 15배 이상 우수한 활성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세경 기자

애경산업 매월 새 칫솔로 치아관리

매월 새 칫솔로 건강하고 깨끗하게 치아관리를 할 수 있는 상품이 나왔다. 애경산업의 오펜케어 브랜드 2080에서 ‘2080 월별 칫솔’을 출시했다고 13일 밝혔다.

2080 월별 칫솔은 총 12개의 칫솔로 구성돼 매달 위생적인 치아 관리를 도와준다. 특히 칫솔대 위 사용 율을 알려주는 표시를 적용해 칫솔 교체주기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원은미 기자

신약 파이프라인 확보 속도

일동홀딩스 계열의 신약개발전문회사 아이디언스가 지난해 말 성사된 재무적 투자자(FI) 자금 유치와 관련해 총 400억원 규모의 투자금 수령 등 최종 절차를 마무리지었다고 13일 밝혔다.

아이디언스측은 이번 투자유치를 통해 개발 진행 중인 신약과제 관련 연구는 물론, 추가적인 신약 파이프라인 확보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아이디언스는 일동제약이 발굴한 신약후보물질 ‘IDX-1197’을 개발하고 있다. IDX-1197은 ‘PARP’라는 효소의

작용기전과 암세포 DNA의 특성을 이용해 암을 치료하는 표적항암제이다.

현재 IDX-1197과 관련해 국내 18개 기관에서 7개 암종을 대상으로 임상 1b 2a상 연구가 진행 중이며, 최근에는 위암을 대상으로 한 병용요법 글로벌 임상시험 계획이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심사를 통과한 상태다.

회사 측은 앞서 IDX-1197 단일요법에 관한 국내 임상 1상을 통해 폭넓은 범위의 약물 용량에서의 임상적 유효성과 안전성을 확인한 바 있어 차후 진행될 병용요법 임상에 있어 유리한 조건을 갖추었다고 설명했다. /이세경 기자